

#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 Causal Effects on Attitude toward Retirement and the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 수 홍 성 회\*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 수 꺾 인 숙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

Professor : Hong, Sung-Hee

Dept. of Silver Welfare, Woosuk Univ.

Professor : Kwak, In-Sook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ffecting factors on male salary workers'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The focus was on the causal effects on salary workers' attitude toward retirement and their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alary worker's attitude toward retirement was neutral, neither positive nor negative, and they estimated their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relatively high. Second, the major factors affecting on attitude toward retirement were salary workers' age, their current economic status, and future perspectives for the post-retirement life. Third, the major affecting factors on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were salary workers' age, health status, and level of self-esteem, household net asset, savings and investment for elderly life, and attitude toward retirement. Forth, the causal effects on the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was verified, and attitude toward retirement had direct effect as well as indirect effect on the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From the finding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alary workers' attitude toward retirement played a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retirement planning.

---

▲주요어(Key Words) : 은퇴태도(attitude toward retirement), 은퇴계획수준(the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 I. 서 론

은퇴는 현대 산업사회의 산물로서, 사회적 생산활동이 나 직업활동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사회적인 의

미에서 은퇴는 노인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 노년기 의 시작을 알리는 사회적 체제이기도 하다(김정열, 1997).

오늘날과 같은 직업중심적 사회에서 개인의 은퇴는 가 정생활주기의 발달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생활사건이나, 외 환위기 이후 기업의 고용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은퇴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은퇴에 대한 인식과

---

\* 주 저 자 : 홍성회 (E-mail : hsh@kmu.ac.kr)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은퇴 이후 길어진 노년기에 대비한 은퇴계획은 은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은퇴는 은퇴자 본인 뿐 아니라 은퇴자가 속한 가정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정생활주기에서도 커다란 생활사건이 된다. 은퇴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선 직업생활에서 물러남으로써 역할과 지위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있다(Burgess et al., 1949). 이는 은퇴자의 자신감과 사기를 저하시키며, 일상생활의 행복과 적응, 나아가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Scott, 1982). 또 소득원이 감소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결혼이나 독립으로 정서적 결핍이 심화될 수 있으며,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최보아·지영숙, 2004).

은퇴는 생활주기단계 중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진입하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며 동시에 역할 전환의 과정이다. 따라서 은퇴에 대한 연구 관심은 은퇴 후 적응이 노년기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은퇴를 기점으로 개인에게 초래될 수입과 역할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자신을 잘 조정하여 변화를 수용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은퇴에 대한 준비와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적응문제는 중년기 및 노년기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적응은 개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조건이나 환경 및 준비에 의해 은퇴를 각기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 결과이다(Maddox, 1970). 즉, 은퇴의 의미는 개인에 따라 달리 지각되는데, 은퇴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에 따라, 또 은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가에 따라 은퇴 후 적응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은퇴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화자와 김영미 등(1996)에 따르면, 노후부양의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고 인식하여 노후에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로 준비방법에 있어서는 폭넓은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조사에서도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한 비율은 28.3%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15.3%는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남성들은 노후생활에서 신체적 건강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노후생활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노후의 건강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경, 1992). 즉, 은퇴준비와 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의 은퇴 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은퇴계획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은퇴계획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제계획에 초점을 맞추거나 은퇴계획의 수립여부와 같은 단일차원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은퇴계획은 은퇴 후 총체적인 생활영역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계획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은퇴는 단편적으로 직업생활에서 철수하는 사건이 아니라 은퇴를 전후로 여러 생활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복합적인 전이과정이므로 은퇴 후 적응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은퇴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은퇴계획을 은퇴 후 경제, 여가, 건강, 주거, 가족관계의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계획으로 구성된 포괄적인 계획으로 접근한다. 또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은 은퇴 후 스트레스 경험이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은퇴태도는 개인적 상황과 요인에 따라 은퇴의 의미와 상황을 지각하고 수용하는 평가과정에서 형성되어 은퇴계획에 영향을 미치므로, 은퇴계획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은퇴계획이 개인의 현재 상황과 특성, 예상되는 은퇴 후 상황에 따라, 또 이러한 상황과 특성에 따라 형성된 은퇴태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남성봉급생활자의 전반적인 은퇴와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은퇴계획의 영향요인을 밝혀냄으로써 개인의 은퇴준비 및 은퇴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은퇴계획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은퇴계획과 관련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밝혀냄으로써 개개인이 은퇴태도에 따라 은퇴계획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을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은퇴계획

남성의 정체감은 주로 직업과 관련되어 형성되기 때문에, 은퇴로 인해 직업을 상실한다는 것은 일생을 통해 경험하는 여러 생활사건 중에서도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이 된다.

은퇴라는 사건의 영향은 각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므로, 은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조건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George(1980)의 사회적 스트레스 모델에 의하면 은퇴는

일상적인 행동유형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여부가 은퇴 후 적응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또, 은퇴 후에는 직업과 수입의 상실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변화, 가정 및 사회적 지위의 하락, 자아정체감의 상실,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그리고 의미있는 생활경험의 감소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은퇴자의 직업만족도, 일로 인한 자아존중감, 은퇴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은퇴 후 생활계획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개인의 은퇴태도와 은퇴에 대비한 계획은 은퇴 후 생활적응 및 안정과 생활만족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Hendricks & Hendricks, 1986; 허정무, 1993에서 재인용) 그 중요성을 갖는다.

Thompson(1973)의 연구에 의하면 은퇴계획을 잘 하여 생활에 적응하면 생활만족도가 높고, 생활조정에 실패한다면 노년 지위로의 변화 역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 또 은퇴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게 될 경우 개인들은 스트레스 정도가 높고, 정서적 만족도나 적응력이 떨어지게 된다(최가영 등, 2001). 반면 은퇴계획을 세움으로써 노년생활을 미리 준비하고 노년기의 변화에 대처하는 노력은 노후에 예측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적응력을 높게 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노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사람들이 예기적 사회화를 용이하게 하여 노후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진계환, 1988).

이와 같이 은퇴계획의 과정은 은퇴에 대한 지각과 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요인과 상황에 따라 은퇴의 의미와 은퇴 상황에 대한 지각과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은퇴태도는 은퇴계획과 함께 은퇴 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은퇴 후 생활적응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은퇴계획은 은퇴 후 전반적인 생활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는 직업과 소득의 중단, 사회적 역할의 감소, 가족관계의 재정립과 주거조정,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한 무위, 건강상태 악화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더욱 심각하고 복합적인 상황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 은퇴계획은 경제, 건강, 주거, 여가, 가족관계의 영역에 대한 다원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수입의 감소에 대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의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며,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수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은퇴 후에는 수입이

감소되거나 단절되므로 경제계획은 은퇴 전에 일찍부터 시작하며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통계청(2004)의 조사에 의하면 건강이 노인의 가장 큰 관심사로 나타난다. 노인들에게는 건강이 신체적인 독립상태를 유지하고 사회에서의 역할 수행과 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건강 유지가 보다 큰 비중을 갖는 문제로 부각된다(정경희, 2001).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유지하는 것 뿐 아니라 예방적 건강행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 및 상담, 영양 및 식생활, 일상생활관리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서인선, 2000).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기능이 대체되거나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은 원활한 사회생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만족스러운 가족생활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가족의 중요성은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발견되지만 노년기에 더욱 커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의 삶이 가족의 책임이라는 전통적인 규범과 가족이외에 노인의 욕구들을 충족시킬만한 사회제도적 기제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노년기의 가족에 대한 의존과 중요성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김정석, 2001). 그러나 이 시기에는 가족원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발달과제를 갖는데, 특히 은퇴 이전까지 직장과 일 중심의 생활을 했던 남성의 경우 가족에로의 통합이 가장 중요한 사회심리적 과제가 된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재정립하고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립과 공존의 적절한 조화를 찾기 위한 계획을 모색해야 한다.

핵가족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은퇴 후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적인 거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은퇴 후 주거는 단순히 선호하는 주택유형이나 거주지역 이상의 의미로, 부양유형 및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다. 즉, 노년기의 주거는 일상생활능력, 건강상태,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 노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살던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므로(Golant, 1982), 은퇴 후 주거계획으로 건강상태나 경제적 능력, 자녀의 부양 의사 등에 따라 자녀와 동거 또는 별거, 유료노인시설, 노인전문병원 등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은퇴 전부터 현실적인 고려와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 후 남성퇴직자에게 가장 눈에 띄게 감지되는 변화는 여가시간의 증가일 것이다. 직장은 합리적 조직유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규정해주므로 직장인들은 스스로 시간계획을 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업무 후의 여가시간까지도 직장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전력을 경주했던 직업생활에서 여가활동으로 활동

영역이 재구성되며(서병숙, 1996),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은퇴 후의 생활 시간 및 활동계획 등을 포함한 여가계획의 필요성이 커진다. 여가시간을 활용한 여가활동은 은퇴 후 생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Bischof, 1976).

이와 같이 은퇴계획은 다양한 노후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로서 의미를 가지므로 종합적인 고려와 대응이 필요하며,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생활환경이 달라지면서 경제력과 건강상태도 향상될 것이며, 은퇴 후에 추구하는 여가와 사회참여 욕구는 훨씬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질적으로 다양해진 노년기 삶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은퇴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2. 은퇴태도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응하려는 후천적으로 체득된 선연향(predisposition)으로, 개인의 사고와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한다(Fishbein & Ajzen, 1975).

은퇴태도는 은퇴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과정에서 형성되어 은퇴계획에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은퇴 이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개인의 은퇴에 대한 지각은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복잡한 과정으로, 은퇴의 의미는 개인에 따라 상반되게 지각될 수 있다. 먼저 은퇴는 후배나 후손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넘겨주고 그동안 짊어졌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진다는 점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다. 반면 은퇴는 위기로 지각될 수도 있는데, 직업생활을 함으로써 향유했던 모든 심리사회적인 기능들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은퇴에 대한 상반된 태도는 은퇴가 누구에게나 심각한 심리사회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보편적인 사건이기 보다는 개인에 따라 은퇴에 대한 지각과 적응에 차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개인의 은퇴태도와 관련된 연구로서 최성재(1989), 김연옥(1992)의 연구에서는 현재 및 은퇴 후 예견되는 경제적 사정, 건강상태, 교육수준, 직종, 퇴직연령 등이 은퇴에 대한 태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은퇴 후에도 무엇을 할지가 준비되어 있어 사회경제적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은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무거운 책임과 역할에서 벗어난 것으로 느끼며, 새로운 활동과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취미생활이나 새 역할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Bosse et al., 1991) 반면 은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Parnes, 1981), 신체 건강이 악화되어 의료시설 사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Boaz & Muller, 1989) 이러한 요인들이 생활만족도와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개인차는 개인의 은퇴태도에 따라 은퇴준비와 은퇴 후 적응이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3. 은퇴계획의 관련요인

선행연구에서 은퇴 후 생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들로는 개인 및 가족특성변수와 직업특성변수가 있다(이승아, 1998; 김정석, 2001; 최가영 등, 2001). 또 현재의 상황보다는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전망과 예측이 은퇴태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주일, 2003). 한편, 은퇴태도는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직업특성, 은퇴특성에 의해 형성되어 결과적으로 은퇴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퇴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은퇴태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직업특성, 은퇴특성을 설정하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관련변수들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 1) 은퇴태도

은퇴에 대한 태도는 은퇴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George, 1980), 개인의 은퇴태도는 은퇴 후 생활적응 및 안정과 생활만족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Hendricks & Hendricks, 1986; 허정무, 1993에서 재인용).

은퇴태도가 은퇴계획의 여부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없으나 사회적 스트레스모델이나 은퇴자의 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입증하듯이 은퇴태도는 은퇴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 2) 사회인구학적 특성

#### (1) 연령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은퇴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Kilty와 Behling(1985)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보인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으나, 연령이 많을수록 퇴직에 대한 태도가 부정

적으로 나타난 연구(이승아, 1998)가 있다. 그러나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은퇴에 대한 불안심리나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부정적인 은퇴태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령 변화에 따라 은퇴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령과 은퇴계획에 대한 연구에서도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계획수준이 높다는 연구(Kilty & Behling, 1985)와 연령에 따라 생활계획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이승아, 1998)가 있다. 그러나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점차 은퇴 후에 대비한 은퇴계획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한편 자신의 은퇴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 구체적인 계획이 가능해지므로 연령이 많을수록 은퇴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 (2) 교육수준

은퇴태도는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지향은·정옥분, 199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퇴직 후에도 새로운 소득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다. 이승아(1998)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보였다. 즉, 교육수준은 노후계획에 대한 의식과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McPherson과 Guppy(1979)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후 계획성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Barfield & Morgan, 1978)도 있다. 임장순(1990)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노후를 의존하지 않기 위해 경제적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은퇴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은퇴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Barfield & Morgan, 1978; 김연옥, 1992)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이승아, 1998)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은퇴 후 생활계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rfield & Morgan, 1978; McPherson 수록 & Guppy, 1979; 이승아, 1998). 건강상태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원이므로 직업생활을 그만두는 은퇴에 대한 태도 및 계획수립과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 (4) 자존감

은퇴자가 은퇴 이전에 가졌던 일과 직업으로 인한 자존감에 따라 은퇴 후 생활계획이 다르게 나타난다(George, 1980). 홍성희 등(2006)의 연구에서도 자존감이 높은 남성복합생

활자일수록 노후대비 저축을 하는 경향을 보였고, 노후 건강에 대한 준비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경제적 특성

#### (1) 가계소득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의 은퇴태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아, 1998).

또한 많은 연구에서 가계소득은 노후 준비 및 은퇴계획의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정석(2001), 이지은(2000), 배문조 등(2004)의 연구에서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은퇴준비를 잘 하고 경제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높았으며, 지연경 등(1991)의 연구에서는 퇴직 후의 취미생활, 건강 유지, 여가 등에 대해 계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순자산

자산은 소득과 함께 은퇴 후 생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는 중년남성가계의 총자산이 노후 경제생활계획 및 여가생활계획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년층이 미래를 위해 더 구체적인 준비가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신하연(1997)의 연구에서도 중년기 소비자의 소득수준과 순자산이 경제적 노후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기영(1995)의 연구에서도 현재 노후준비가 되어있는 중년기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의 자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자산이 은퇴계획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3) 현재 경제적 능력

현재의 경제적 능력은 소득 및 자산과 같은 객관적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소득 및 자산과 함께 은퇴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태를 5년 전과 비교한 현재가계경제 평가를 경제생활계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측정하였는데, 현재 가계경제에 대한 평가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현재의 경제적 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은퇴 후 경제상태가 계속 악화될 것을 우려해 경제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직업특성

#### (1) 직업

직업과 직업지위는 은퇴 후의 복지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은퇴 후 생활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 은퇴에 대한 태도와 은퇴계획에 차이가 있어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 종사자가 생산직 종사자에 비해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보이며 은퇴 후 생활에 대비한 계획 정도가 높다(Burgess et al, 1958). 이승아(1998)의 연구에서도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 종사자의 퇴직태도가 생산·판매직 종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으로써 직종과 관련된 경제적 자원의 영향이 내재된 것으로 보였다. 또 이주일(2003)의 연구에서는 직업과 관련된 직위가 퇴직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 (2)직업지향성

직업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물질적인 삶의 토대일 뿐 아니라 주관적인 자아정체감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이러한 직업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은퇴의 의미와 은퇴 후 생활이 영향을 받는다(서병숙, 1996).

은퇴는 직업역할의 상실에 따른 사회적 지위 저하, 정체감의 혼란 등의 불안감을 가져오므로, 직업지향성이 높을수록 은퇴태도는 부정적이다(장인협·최성재, 1994; Kilty & Behling, 1985). 그러나 직업지향성이 독자적으로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에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직업지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George, 1980)도 있다.

한편 은퇴계획은 직업지향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직업지향성이 높을수록 은퇴계획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아, 1998).

### (3)직업만족도

이승아(1998)의 연구에서는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계획의 계획성이 높았으며, 특히 직업만족도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중년기 직장남성의 생활계획에는 개인 및 가족의 특성보다 직업특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 5) 은퇴특성

#### (1)노후대비투자액

노후를 대비한 저축이나 자산은 노후생활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지은(2000)의 연구 결과 노후대비저축액과 노후대비자산액은 각각 노후를 위한 경제생활계획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노후대비저축액은 여가생활계획에도 정적 영향을 미쳐, 저축과 자산 중 노후를 대비한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노후대비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다.

#### (2)예상필요노후자금

자산이 소득과 함께 현재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의미를 갖는다면, 예상 필요노후자금도 은퇴 후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자금의 정도에 따라 은퇴태도 및 은퇴계획 수립의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3)은퇴 후 생활전망

은퇴태도는 인구학적 변인이나 현재 경제적 수준보다는 은퇴 후에 대한 예측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퇴 후 예견되는 안녕감, 활동수준 및 생활수준전망이 은퇴에 대한 태도와 높은 관련을 보였다(이주일, 2003). 최성재(1989), 김연옥(1992)의 연구에서도 은퇴 후 예상되는 경제적 생활수준이 은퇴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퇴 후에는 소득원의 상실 및 소득액의 감소로 인해 경제적 상태가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러한 경제적 상태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은퇴계획의 수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남성봉급생활자가 은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은퇴계획을 하고 있으며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은퇴계획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은퇴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은퇴태도를 매개로 한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개인적 요인과 상황에 따른 은퇴계획의 차이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은퇴계획의 문제점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태도는 개인의 행동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행동에 앞서 형성된다(Fishbein & Ajzen, 1975). 또, 은퇴 후 생활적응과 스트레스의 정도는 은퇴 후 생활계획 뿐 아니라 은퇴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George, 1980). 그러므로 은퇴계획은 은퇴태도의 형성을 통해 수립되는 일련의 복합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은퇴계획의 여부나 수립정도와 같은 결과론적인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은퇴태도를 은퇴계획과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은퇴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은퇴태도를 통한 은퇴계획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남성봉급생활자들의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의 실패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남성봉급생활자의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

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남성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구성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은퇴를 대비하여 은퇴계획을 하고 있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은퇴계획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는 크게 남성봉급생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직업특성, 은퇴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자존감 등을, 경제적 특성으로는 가계소득 및 순자산, 현재의 경제적 능력을 포함하였다. 직업특성으로는 직업과 직업지향성, 직업만족도를 선정하였다. 은퇴라는 사건은 미래에 발생하게 되므로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나 직업특성 만으로는 은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은퇴특성을 선정하고 은퇴특성으로는 은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은퇴태도, 노후대비투자액, 예상 필요노후자금, 은퇴 후 생활전망을 조사하였다.

은퇴계획수준을 파악하기 변수는 은퇴 후 전반적인 생활에 대비한 계획으로 경제계획, 건강계획, 주거계획, 여가계획, 가족계획의 5개 영역에 대한 계획수준을 31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은퇴계획의 영역을 5개 영역으로 설정한 것은 기존의 은퇴계획 연구가 경제적 계획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은퇴 이후에 당면하게 되는 전반적인 생활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은퇴계획의 문항은 선행연구(김태현, 1995; 전길양 등, 2000; 박경숙, 2003; 홍성희 등, 1998; 전길양 등, 2000; 박인숙, 1998; 홍형옥, 2001; 신화용 등, 1999; 홍성희, 2000; 정경희, 2001; 이정숙 등, 2005)를 참고로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b>종속변수</b>	
은퇴계획수준(31)	은퇴 후를 대비한 경제, 주거, 가족, 여가, 건강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도 1=전혀 계획 안됨 5=완벽한 계획
<b>독립변수</b>	
<u>은퇴태도(5)</u>	미래 은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정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u>사회인구학적 특성</u>	
연령	만 연령(세)
교육수준	교육연수
건강상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
자존감	1=아주 좋지 않다 5=아주 건강하다
<u>경제적 특성</u>	
가계소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월평균 가계소득(만원)
순자산	현재 가계 금융자산+실물자산-부채(천만원)
현재 경제적 능력	가구의 현재 경제적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1=하 3=중 5=상
<u>직업특성</u>	
직업(판매직·기술직)	
사무직	1=사무직 0=판매직·기술직, 관리직·전문직
관리직·전문직	1=관리직·전문직 0=판매직·기술직 및 사무직
직업지향성(3)	직업적 성취와 직업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직업만족도(3)	직업 및 직장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u>은퇴특성</u>	
노후대비투자액	노후를 위해 투자 또는 가입하고 있는 공적연금, 사적연금, 예적금, 보험의 월평균액(만원)
예상필요노후자금	은퇴 후 사망 시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천만원)
은퇴 후 생활전망	예상되는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전망 1=매우 나빠질 것이다 3=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5=매우 좋아질 것이다

( ) : 설문 문항수

### 3.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조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며 일반 기업체에 종사하는 남성 봉급생활자이다. 봉급생활자는 최근 들어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기업환경에서 퇴직시기를 자발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거나 조기퇴직하는 경향이 있어 퇴직에 대비해 은퇴계획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봉급생활자 중 공무원 및 교원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러한 직종은 정년이 보장되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 종사자보다 은퇴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조사지역을 수도권으로 제한한 것은 도시의 규모에 따라 봉급생활자로의 취업기회에 차이가 크므로 봉급생활자의 보편적인 재직 및 은퇴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자를 남성으로 한정된 것은 남성이 가정에서 가족부양자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은퇴계획의 필요성을 여성보다 더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비조사는 2005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 까지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설문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2005년 7월부터 9월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550부 중 부실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한 445부의 표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4. 분석방법

조사된 자료의 분석은 PC SPSS Program(Ver 12.1)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은퇴계획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은퇴태도 및 은퇴계획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은퇴계획수준에 대한 인과모형은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독립변수 중 가계소득 및 순자산, 예상 필요노후자금, 은퇴 후 예상가계소득, 노후대비투자액 등은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가 크므로 이로 인한 극단치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회귀분석 시 로그값을 취하였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와 VIF계수를 검토하였다.

## IV. 분석 및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평균 연

령은 42.6세였으며, 50대 이상의 분포가 가장 낮아 최근 직장인의 조기 퇴직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은 대졸자가 약 55%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대학원 졸업자도 6.7%로 높은 교육수준을 보였다. 직업은 사무직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직 및 전문직이 31.5%를 차지하는데 사무직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은 30대 대상자가 가장 많았던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소득은 약 453 만원이었으며, 300만 원 이하가 28.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01만 원 이상이 26.1%였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가계의 순자산은 약 4억 원 정도이며, 직업지향성과 직업만족도는 중간점인 3점을 약간 넘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퇴 상황과 관련된 특성으로서, 은퇴 후를 대비해 현재 저축이나 투자하고 있는 월부담액은 약 49만 원이며, 노후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자금은 약 5억 9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전망은 중간점인 3점보다 낮은 2.78로,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은퇴태도 및 은퇴계획 실태

조사대상자의 은퇴태도 및 은퇴계획에 대한 실태는 <표 3>과 같다. 은퇴태도는 최대값 5점 중 평균 3.05점으로 중도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일(2003)의 연구에서 기업체 구성원들이 퇴직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것이나 최가영 등(2001)의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의 대상자가 정년퇴직에 대해서도 퇴직 후 적응의 어려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적 퇴직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했던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한편 은퇴태도를 구성하는 세부문항을 비교해보면, 은퇴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은퇴를 생각하면 막연하게 불안감을 느끼며, 특히 가능한 한 최대한 연기하고 싶다는 부정적인 태도 또한 높아 전체적으로는 특별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중도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은퇴 후를 대비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비율은 47.8%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이 더 많았다. 은퇴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평균을 통해 비교한 결과 건강에 대한 계획정도가 평균 2.69점으로 가장 높았다. 건강상태가 노년기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걱정거리로 나타난 연구결과(이지은, 2000; 정경희 등, 2005)와 비교할 때 건강계획을 통해 노년기의 건강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주거계획을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45)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연령	30대	182	40.9
	40대	160	36.0
	50세 이상	101	22.7
교육수준	전문대졸 이하	168	37.8
	대졸	245	55.1
	석사 이상	30	6.7
직업	판매직 기술직 자유직	98	22.0
	사무직	200	44.9
	관리직 전문직	140	31.5
가계소득	300만원 이하	126	28.3
	301~400만원	107	24.0
	401~500만원	95	21.3
	501만원 이상	116	26.1
연속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		42.63	7.67
교육년수		15.69	2.08
가계소득(만원)		453.40	213.52
현재 경제적능력		2.78	.80
건강상태		3.69	.81
자존감		3.13	.36
순자산(천만원)		40.40	52.10
직업지향성		3.35	.78
직업만족도		3.32	.79
노후대비투자액(만원)		48.96	43.12
예상필요노후자금(천만원)		59.44	44.97
은퇴후 생활전망		2.78	.73

<표 3> 은퇴태도 및 은퇴계획실태

(N=445)

은퇴태도		평균	표준편차
은퇴태도	새로운 인생의 계기	3.30	.93
	나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	2.99	.89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	3.30	.90
	막연한 불안	2.91	.97
	연기 희망	2.75	1.07
	전체	3.05	.64
은퇴계획		빈도	백분율(%)
은퇴계획 유무	은퇴 후 생활계획 하고 있다	209	47.8
	은퇴 후 생활계획 하고 있지 않다	228	52.2
은퇴계획수준		평균	표준편차
은퇴계획 수준	경제계획수준	2.28	.82
	주거계획수준	2.51	1.05
	가족계획수준	2.39	.94
	여가계획수준	2.37	.93
	건강계획수준	2.69	.80
전체		2.44	.69

<표 4>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에 관한 중회귀분석

(N=445)

독립변인	종속변인			은퇴태도			은퇴계획수준		
	b	$\beta$	VIF	b	$\beta$	VIF	b	$\beta$	VIF
연 령	-.010 *	-.117	1.531	.020 ***	.224	1.570			
교육년수	.111	.087	1.348	.010	.007	1.338			
건강상태	.006	.008	1.058	.082 *	.099	1.062			
직업(사무직)	.098	.071	1.535	.062	.045	1.535			
직업(관리직, 전문직)	-.058	-.040	1.580	-.083	-.057	1.577			
자존감	-.130	-.070	1.101	.225 *	.106	1.099			
가계총소득(log값)	.045	.031	1.791	-.074	-.046	1.802			
현재경제적능력	.125 **	.156	1.600	.044	.050	1.611			
예상필요노후자금(log값)	.036	.042	1.320	.022	.023	1.304			
은퇴후생활전망	.283 ***	.322	1.154	.078	.081	1.409			
순자산(log값)	-.067	-.104	1.976	.120 *	.172	1.993			
노후대비투자액(log값)	.033	.040	1.190	.131 **	.145	1.213			
은퇴태도	-	-	-	.210 ***	.198	1.361			
상수		1.840			-1.174				
R <sup>2</sup> (Adj-R <sup>2</sup> )		.222(.191)			.219(.182)				
F값		7.503***			5.886***				

\*p<.05 \*\*p<.01 \*\*\*p<.001

<표 5> 변수들의 상관관계

(N=445)

	1	2	3	4	5	6	7	8	9
1. 연 령	1.00								
2. 건강상태	-.064	1.00							
3. 순자산(log값)	.435 ***	-.015	1.00						
4. 현재경제적 능력	.178 ***	.031	.514 ***	1.00					
5. 은퇴후생활전망	-.254 ***	-.058	.061	.079	1.00				
6. 노후대비투자액(log값)	.026	-.053	.235 ***	.251 ***	.094	1.00			
7. 자존감	.014	-.047	-.041	.005	-.054	-.019	1.00		
8. 은퇴태도	-.201 ***	.057	.042	.168 ***	.396 ***	.108 *	-.129 ***	1.00	
9. 은퇴계획수준	.185 ***	.131 ***	.295 ***	.299 ***	.104 *	.252 ***	.045	.176 ***	1.00

\*p<.05, \*\*\*p<.001

하고 있는 정도가 2.51점이며, 경제계획을 하고 있는 정도는 2.28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3.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직업특성, 은퇴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중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은퇴 후 생활전망

의 영향력( $\beta = .322$ )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현재 경제적 능력( $\beta = -.156$ ), 연령( $\beta = -.117$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보였다. 이는 퇴직태도의 영향요인으로 퇴직 후 생활에 대한 전망과 예측이 퇴직자의 인구학적 변인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한 이주일(2003)의 견해나 퇴직 후 예상되는 경제생활수준이 퇴직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최성재(1989), 김연옥(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 현재의 경제적 능력을 높게 평가할수록 은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최성재(1989)의 연구에서도 현재의 경제적 사정이 퇴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경로모형을 위한 최종 회귀분석표

(N=445)

독립변인	종속변인	은퇴태도		은퇴계획수준	
		b	β	b	β
연령		-.013***	-.154	.016 ***	.182
건강상태				.087 *	.105
순자산(log값)				.122 **	.176
현재경제적 능력		.141***	.175		
은퇴후생활전망		.306***	.345		
노후대비투자액(log값)				.150 ***	.167
자존감				.247 *	.117
은퇴태도		-	-	.247 ***	.224
R <sup>2</sup> (Adj-R <sup>2</sup> )		.196(.191)		.188(.175)	
F값		35.284***		13.695***	

\*p<.05, \*\*p<.01, \*\*\*p<.001

한편 연령은 은퇴태도에 대하여 부적 영향을 보였는데,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은퇴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은퇴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많을수록 은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많은 선행연구(Goudy et al., 1980; 이승아, 1998)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은퇴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연령이 가장 큰 영향력(β =.224)을 보였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은퇴계획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은퇴 후를 대비한 은퇴계획의 필요성이 커지며 점차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이 은퇴계획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령의 영향력은 Kilty 등(1985)의 연구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은퇴계획수준이 높았던 것이나 노후 경제적 준비의 수준이 높았던 홍성희 등(200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다음으로는 은퇴태도(β =.198), 순자산(β =.172), 노후대비투자액(β =.145), 자존감(β =.106), 건강상태(β =.099)의 순으로 은퇴계획수준에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18.2% 였다.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보일수록, 순자산이 많을수록, 노후대비투자액이 많을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은퇴계획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이 많을수록 은퇴계획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경제적 여유로 인해 구체적인 은퇴계획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신하연(1997), 이지은(2000), 배문조 등(2004)의 연구 결과 순자산 및 총자산이 노후 경제계획이나 여가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자산은 경제적 측면의 계획 뿐 아니라 전반적인 은퇴계획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노후대비투자액이 은퇴계획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노후대비저축율이 노후 경제생활계획과 여가생활계획에 정적 영향을 미쳤던 이지은(200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자존감은 은퇴계획에 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배문조 등(2004)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신체적 측면의 은퇴준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건강상태는 많은 선행연구(Barfield & Morgan, 1978; McPherson & Guppy, 1979; 이승아, 1998)에서와 같이 은퇴계획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됨으로써 양호한 건강이 은퇴계획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 은퇴태도는 은퇴계획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은퇴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긍정적인 은퇴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 4. 은퇴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의 인과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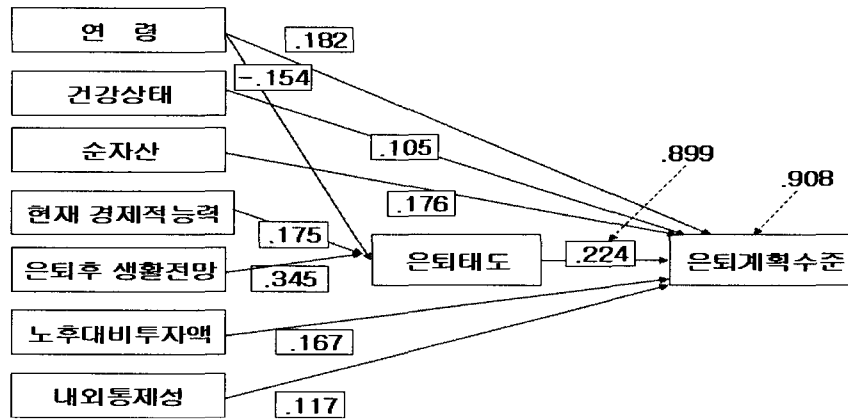
남성봉급생활자의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에 관한 중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남성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배제한 후 새로운 모형을 구성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또 각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표 7>에 제시하였고, 이에 근거한 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다. <표 6>과 <표 7>에 의하면 건강상태, 순자산, 노후대비투자액, 자존감은 매개변인인 은퇴태도에 관계없이 남성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표 7> 남성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수준에 대한 총 경로효과

(N=445)

독립변인	인과효과		총인과효과	비인과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연 령	.182	-.034	.147	.038	.185
건강상태	.105		.105	.026	.131
순자산(log값)	.176		.176	.119	.295
현재경제적 능력		.039	.039	.260	.299
은퇴후생활전망		.077	.077	.027	.104
노후대비투자액(log값)	.167		.167	.085	.252
자존감	.117		.117	-.072	.045
은퇴태도	.224		.224	-.048	.176

\*p<.05, \*\*p<.01, \*\*\*p<.001



<그림 1>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에 관한 인과모형

나타났는데,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순자산이 많을수록, 노후대비투자액이 많을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은퇴계획을 많이 하고 있었다.

현재 경제적 능력과 은퇴 후 생활전망은 남성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수준에 은퇴태도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만이 존재하는데, 현재 자신과 가계의 경제적 능력을 높게 평가할수록, 은퇴 후 생활을 긍정적으로 전망할수록 은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은퇴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수는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변수로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객관적인 경제상태 뿐만 아니라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또한 은퇴태도 및 은퇴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연령이 은퇴계획수준에 미치는 총효과( $r=.185$ )는 총인과효과(.147)와 비인과효과(.038)로 구분되며, 총인과효과는 직접효과(.182)와 은퇴태도를 통한 간접효과(-.034)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은퇴태도를 통해 부의 간접효과를 갖으나 은퇴계획수준에 미치는 정적 직접효과가 더 커서 인과적 효과는 대부분 직접효과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즉,

연령은 은퇴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쳐 연령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은퇴태도를 보이거나, 은퇴계획수준에 정적 영향을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은퇴계획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건강상태와 순자산, 노후대비투자액, 자존감은 은퇴계획수준에 직접효과만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건강상태가 은퇴계획수준에 미치는 총효과( $r=.131$ )는 인과적 효과(.105)와 비인과 효과(.026)로 구분되며, 순자산의 총효과( $r=.295$ ) 역시 인과적 효과(.176)와 비인과 효과(.119)로, 노후대비투자액의 총효과( $r=.252$ )는 인과적 효과(.167)와 비인과 효과(.085)로, 자존감이 은퇴계획수준에 미치는 총효과( $r=.045$ )는 인과적 효과(.117)와 비인과 효과(-.072)로 구분되며, 이들은 모두 인과적 효과 중 직접효과만을 보였다.

현재 경제적 능력과 은퇴 후 생활전망은 은퇴계획수준에 은퇴태도를 통한 간접효과만을 보였다. 즉, 현재 경제적 능력의 총효과( $r=.299$ )는 인과적 효과(.039)와 비인과 효과(.260)로, 은퇴 후 생활전망이 은퇴계획수준에 미치는 총효과( $r=.104$ )는 인과적 효과(.077)와 비인과 효과(.027)로 구분되며, 인과적 효과 중 은퇴태도를 통한 간접효과만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은퇴태도의 은퇴계획수준에 미치는 총효과 ( $r=.176$ )는 인과적 효과(.224)와 비인과적 효과(-.048)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 은퇴태도는 은퇴계획수준에 가장 큰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남성봉급생활자가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가질수록 은퇴계획을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태도가 은퇴계획수준의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임이 입증된 것이다. 즉, 은퇴계획에 있어서 은퇴태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개인의 은퇴에 대한 지각과 반응이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과정으로서 은퇴계획에 영향을 미치며, 은퇴계획과 은퇴 후 적응이 노년기 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성을 갖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남성봉급생활자가 자신의 상황과 개인적 요인에 따라 은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은퇴 후 경제, 건강, 주거, 가족관계, 여가 등의 생활 전반에 대비하여 은퇴계획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직업특성, 은퇴특성의 영향력과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에 대한 태도는 특별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중도적인 태도를 보여, 은퇴에 대해 명확한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은퇴 후를 대비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비율은 47.8%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이 약간 더 많았으며, 은퇴계획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건강계획을 가장 잘하고 있으며, 경제계획을 가장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은퇴 후 생활전망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할수록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은퇴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미래예측요인이 현재의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요인보다 더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현재의 경제적 능력은 은퇴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은 부적 영향을 보였는데,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은퇴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은퇴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은퇴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는 연령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준비와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은퇴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순자산이 많을수록, 노후대비투자를 많이 할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은퇴계획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순자산이나 노후대비투자액과 같은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능력은 은퇴계획의 가능성을 높이는 유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자존감이나 건강상태는 은퇴계획에 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변수를 통해 은퇴를 앞두고 있는 개인의 심리상태나 기본적인 인적 자본인 건강상태 등 개인적 요인이 은퇴계획에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은퇴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 순자산, 노후대비투자액, 자존감은 은퇴태도를 매개하지 않고 남성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순자산이 많을수록, 노후대비투자액이 많을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은퇴계획을 많이 하고 있었다. 한편 현재 경제적 능력과 은퇴 후 생활전망은 은퇴계획수준에 은퇴태도를 매개로 한 정적 간접효과만이 존재하는데, 현재 경제적 능력과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은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은퇴계획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수는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의미하는 변수로서, 객관적인 경제상태 뿐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 또한 은퇴태도 및 은퇴계획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연령은 은퇴계획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갖는데, 은퇴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쳐 연령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은퇴태도를 보이거나 은퇴계획수준에 강한 정적 영향을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은퇴계획의 수준이 높아진다. 또 매개변인인 은퇴태도는 은퇴계획수준에 대하여 가장 큰 정적인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은퇴태도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계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형성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남성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중 가장 계획수준이 높았던 영역이 건강계획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계획이나 주거계획, 가족계획과 같이 타인의 지지나 금전적 자원을 필요로 하기 보다는 건강계획은 스스로 관리하고 실천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계획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이 노년기에 가장 크고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은퇴 전부터 은퇴 후 노년기를 대비해 건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둘째, 은퇴태도의 영향요인으로 가계소득이나 자산보다는 현재의 경제적 능력이, 노후대비투자액 보다는 은퇴 후 생활전망과 같이 주관적인 경제상태를 반영하는 변수가 부각되었다. 즉, 자신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미래 은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은퇴태도에는 개인적 특성보다 은퇴 후 미래에 대한 예측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연령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은퇴태도를 보였는데, 은퇴가 다가올수록 은퇴 이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동시에 충분한 노동능력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은퇴 의사와 상관없이 시행되는 퇴직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체에서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불안심리를 완화시키고 재취업이나 전직을 지원하는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은퇴계획수준의 영향요인 중 자존감이 영향력을 보임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은퇴계획 수립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상태는 개인의 인적 자본으로서 은퇴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정보 수집, 선택 기회와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자산 및 노후대비투자액도 정적 영향을 보임으로써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짐으로써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은퇴계획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은퇴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통해 개인의 특성과 직업특성, 은퇴특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은퇴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적 특성과 여건에 따라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은퇴태도는 은퇴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로서 중요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본 연구의 설계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개인적 특성 중 연령은 은퇴계획수준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은퇴태도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보임으로써 은퇴계획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또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순자산과 노후대비투자액은 은퇴계획수준에 직접 효과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현재 경제적 능력과 은퇴 후 전망은 간접효과를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상태를 반영하는 변수들이 은퇴계획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한편 매개변수인 은퇴태도는 정적 직접 효과 이외에 현재 경제적 능력과 은퇴 후 전망의 효과를

매개하는 변수로서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은퇴태도가 뚜렷하지 않고 중도적인 수준으로 표명된 것을 볼 때 은퇴계획에 앞서 은퇴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과 평가과정을 통해 명확하고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형성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은퇴계획 관련변수들의 영향력과 인과관계에서 나타났듯이 자존감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들이, 또 순자산이 많고 노후대비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퇴계획도 많이 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자산이 적고 노후대비투자를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서는 은퇴계획을 수립하는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 충분치 못해 미래를 위한 준비와 계획을 하지 못하거나 미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현재 취약계층이 은퇴 후 노년기에도 취약계층으로 머물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본 연구는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영향요인의 영향력과 인과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개인적 요인과 상황에 따른 은퇴계획의 차이를 찾아내고, 은퇴계획의 문제점을 밝히는데 기여한 의의가 있다. 또, 은퇴계획수준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개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자산상태, 노후대비 저축 및 투자능력 등에 따라 개개인에게 적합한 은퇴계획의 바람직한 수준을 설정한다면 개인이나 기업에서 은퇴계획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기업에서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은퇴자 교육이나 전직을 고려하는 명예 퇴직자를 위한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정책부서에서도 자력으로 은퇴 준비를 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자나 고령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대책수립에 대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의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조사대상자의 연령 분포를 고려한 유의표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대 대상자가 많아 은퇴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건강상태변수는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통해 측정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질병유무, 병원치료횟수 등의 척도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자산이나 노후대비투자가 적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은퇴계획을 더 필요로 하는 집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후속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또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태도를 매개로 한 은퇴계획수준이 더 나아가 은퇴 후

의 생활적응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기여도를 조사하는 연구도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 접수일 : 2007년 01월 15일
- 심사일 : 2007년 02월 09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3월 13일

**【참 고 문 헌】**

곽인숙(1998). 노인의 취업여부와 건강상태에 따른 주거선호. **대한가정학회지**, 36(11), 43-60.

김미경(1992). **중년층의 노년 생활준비 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김미혜(1993). 노년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모형의 개발. **한국노년학**, 13(2), 15-29.

김연옥(1992). 퇴직예정자의 퇴직태도 및 퇴직 후의 계획에 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제 4호, 1-26.

김연정(1998). 노후준비의 관점에서 본 가계재정상태의 구조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김애순·윤진(1995). 은퇴 이후의 심리·사회적 영향 - 은퇴는 위기인가? **한국노년학**, 15(1), 141-158.

김정열(1997). 퇴직 전 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석(2001). 노년기 가족관계의 질에 대한 척도 구성.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김정석(2001). 노후부양주체로서의 노인, 가족, 사회 / 국가의 역할: 중년층의 노후부양태도와 준비상태를 중심으로.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김태현(1995). **노년학**. 교문사.

김향은·정옥분(1992). 정년 퇴직을 앞둔 중년 남성의 심리적 불안. **대한가정학회지**, 30(2), 159-169.

박경숙(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

박선옥(1997). **중장년 사무직을 위한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태도와 프로그램육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연구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 논문.

배문조·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서병숙(1996).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서인선(2000). 노인들의 지식과 건강행위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0(2), 1-28.

성미애(1999). **남성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 후 적응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성미애·옥선화(2002).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 후 적응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9.

신하연(1997). **중년기 소비자들의 경제적 노후대비수준과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신화용·조병은(1999).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상호작용특성과 결혼만족도. **한국노년학**, 19(1), 31-44.

은기수(2001). **한국 노인들의 경제생활**,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이기영 등(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II): 경제생활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5), 115-128.

이승아(1998). **중년기 직장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이정숙·이인수(2005). 노년기 건강관리행동과 사회경제요인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7, 231-253.

이주일(2003). 기업구성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준비 교육 요구. **한국심리학회지**, 16(1), 57-79.

이지은(2000).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자·김영미(1996). 청소년의 부모부양의식과 중년기 부모의 노후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 34(2), 117-128.

임장순(1990). **한국인의 노후생활대책에 관한 의식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장삼수(1998). **조기퇴직 불안이 중년기 위기에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40~50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장인협·최성재(2000).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전길양·송현애·고선주·김일명(2000). 노년기 준비교육 프로그램: 풍요로운 노후 가꾸기. **한국노년학**, 20(1), 69-91.

정정희(2001). 노년기의 건강.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정정희·오영희·석재은·도세록·김찬우·이윤경·김희경(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지연경·조병은(1991).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217-240.

진계환(1988). **은퇴자를 위한 노후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최가영·조임현·이의훈(2001). 노년기근로자의 퇴직현상에 관한 심층적 연구. **한국노년학**, 21(1), 73-92.

최보아·지영숙(2004). 은퇴자의 생활설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47-61.

- 최성재(1989). 퇴직예정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생활전망의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창간호, 47-65.
- 통계청(2005). 2004년 사회통계조사 주요결과. 통계청 보도 자료.
- 허정무(1993). 교원의 정년퇴직 준비 과정과 퇴직 후 사회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허정무(1998). 퇴직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탐색을 통한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한국노년학회지*, 18(3), 1-18.
- 홍성희·이경희·곽인숙·김순미·김혜연·김성희(1998).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중노년층의 노후생활계획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22.
- 홍성희(2000). 중노년기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5), 121-136.
- 홍성희·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 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 홍형욱(2001).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 한국에서의 노인생활지원주택 개발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47-166.
- Barfield, R. & Morgan, J.(1978). Trends in Planned Early Retirement. *Gerontology*, 11, Spring, 29-32.
- Bischof, L.(1969). *Adult Psychology*. N.Y.: Harper & Row.
- Boaz, R. F. & Muller, C. F.(1989), Does Having More Time after Retirement Change the Demand for Physician Services? *Medical Care*, 27, 1-15.
- Boss, R., Aldwin, C. M., Levenson, M. R. & Workman-Daniels, K.(1991), How Stressful is Retirement?: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46(1), 9-14.
- Burgess, E. W., Havighurst, R. T. & Goldhammer, H.(1949), *Personal Adjustment in Old Age*. Science Research Associates, Chicago Press.
- Evans, L. Ekerdt, D. J. & Bosse, R.(1985), Proximity to Retirement and Anticipatory Involvement :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40(3), 368-374.
- Fishbien, M. & Ajen, J.(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 Addison wesley.
- George, L. K.(1980). *Role Transitions in Later Life*. Brooks Cole Publishing Company.
- Golant, S. M.(1982). Individual Differences Underlying the Dwelling Satisfaction of the Early. *Journal of Social Issues*, 38(3), 121-133.
- Goudy, W. J., Powers, E. A., Keith, P. M. & Reger, R. A.(1980). Changes in Attitudes toward Retirement : Evidence from a Pane Study of Older Males. *Journal of Gerontology*, 35(6), 942-948.
- Kilty, K. M. & Behiling, J. H.(1985). Predicting the Retirement Intentions and Attitude of Professional workers. *Journal of Gerontology*, 49(2), 219-227.
- Maddox, G. L.(1970). Adaptation to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10, Spring, 14-18.
- McPherson, B. & Guppy, N.(1979). Preretirement Life-Style and the Degree of Planning for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34, 254-263.
- Miller, S.(1965). The Social Dilemma of the Aging Leisure Participant in W. Peterson(Eds.). *Older People and their Social World*. Philadelphia, F. A. Davis Co., 77-92.
- Parens, H. S. J. & Gilbert, N.(1981). *The Retirement Experience*. Cambridge, M.A.: MIT Press.